

since 1946-1979 years

5·16 군사정변 해체 위기...의료법 첫 의사 정기신고 제7차 CMAAO 서울총회 개최...도약 위한 발판 닦아

휴전과 환도 직후 의협은 1954년 6월 19일 총회를 열어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1954년 군진의학협회가, 1956년 한국여자의사회가 창립의 닦을 올렸다. 의협은 1955년 전문의제도 개선 활동과 1956년 '한지의사 승격'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료법 개정안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의협은 사회단체 재등록을 받지 못해 소급등록을 하기 전까지 한동안 해체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의협은 1961년 아시아오세아니아연맹(CMAAO) 가입을 시작으로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1962년 국민의료법 명칭을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의협 산하에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법에 의한 첫 의사 정기신고를 진행했다.

1963년 관철동 회관 신축 이전, 1964년 유사의료업자법률안 저지 활동,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대한의학회 전신) 발족, 1967년 대한의학협회 공식 기관지 [醫協新報] 창간 등이 이뤄졌다.

1970년대 들어 의협은 1971년 제7차 CMAAO 서울총회 개최, 1972년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 1974년 이촌동 의협 회관 준공 등을 추진하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직장의료보험제도 실시,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보험 제도 도입으로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격변기를 예고했다.

의협은 1979년 119의 전신인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1965년 개최한 제17차 대한의학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대의원 수는 약 60명으로 연간 예산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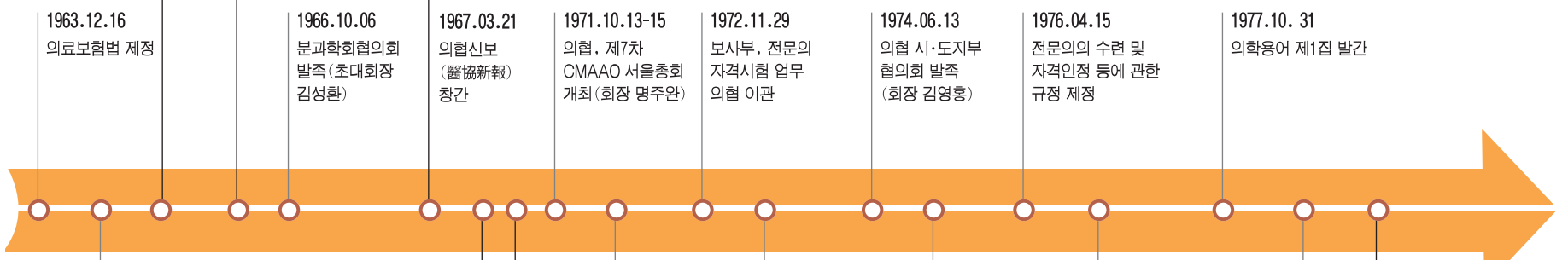


▲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의협 회관에서 열린 [醫協新報] 현판식. [의협신문]의 전신인 [醫協新報]는 3월 21일 정식 창간했다. 현판식에서 대한의학협회 명주완 회장과 김사달 공보간행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현판을 들고 있다(1967년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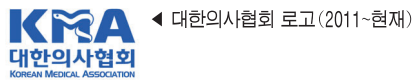


1966.07.05

▲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3대 약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의협은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지시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등을 유사의료로 제도화하는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법률안',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보건소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며 당시 의협 회관(종로구 관철동)에서 국회의원사당(현 서울시의회 건물)이 있는 태평로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 대한의사협회 휘장 (1947-1964)



▲ 대한의사협회 로고 (2011-현재)



1968.10.

▲ 의협 창립 60주년 종합학술대회에는 20개 우방국 대표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열렸다.



1970.04.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에서 열린 의협 회관 신축 기공식.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이촌동 의협회관은 1974년 4월 26일 준공, 43년 동안 사용했다.



▲ 의협이 대국민 봉사 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119의 모범을 제시하며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1979년 9월 1일 의협 회관 앞에서 열린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 현판식. 사진 왼쪽부터 이혜수 센터본부장(의협 상임이사)·문태준 대한의학 협회장·홍성철 보건사회부 장관.